

	<h1>보도자료</h1>	2022. 01. 05. (수)
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·혁신 대전환위원회 ※ 담당 : 윤석민(010-7151-6228), 변아영(010-6371-1695)		

<디지털·혁신 대전환위원회> - 소프트웨어단체협의회

5일, ‘먼저 국민께 듣겠습니다’ 현장 간담회 개최!

-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속 <디지털·혁신 대전환위원회> 국민과의 소통 이어 가
- 박영선 위원장, 지난주 현장 간담회에 이어 소프트웨어 산업계 정책 제안 경청
- 박영선, “디지털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바로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”

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<디지털·혁신 대전환위원회(위원장:박영선)>가 지난주 ‘먼저 국민께 듣겠습니다’ 현장 간담회를 세 차례 개최한 데 이어 2022년 신년에도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는 간담회를 이어 간다.

<디지털·혁신 대전환위원회>는 지난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소상공인, 벤처-스타트업계,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각각 만나 이들의 애로사항 등을 듣고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.

이어 <디지털·혁신 대전환위원회>는 5일 오후 3시 30분 서울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을 대표하는 소프트웨어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대한민국의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디지털 대전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소프트웨어의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.

지난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과학기술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“과학이 곧 미래를 이끌어 갈 힘이기 때문에 과학의 발전이 세계를 주도할 것” 이라고 말하고 “과학기술 혁신전략을 국정과제 맨 앞줄에 배치해 세계가 놀랄 정도로 강력하게 과학기술 투자에 집중하겠다” 고 밝힌 바 있다.

박영선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이 같은 의지에 동감을 표시한 뒤 “과거 컴퓨터가 처음 등장했을 때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인력 확보가 당시 경제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가 됐던 것처럼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디지털 인재 양성이 시급한 과제” 라고 말하고 “디지털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바로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” 이라고 강조했다.

박 위원장은 “다음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으로 소프트웨어 인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더 빠른 디지털 국가로의 전환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” 이라고 말했다. /끝/

※ [첨부1] 간담회 개요

○ 소프트웨어단체협의회와의 간담회

- 일시 : 2022. 01. 05.(수) 15:30 ~ 16:40 (70분)
- 장소 : 중소기업중앙회 5층 이사회 회의실(주소 : 영등포구 은행로 30)
- 참석자 :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, 김동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회장, 정진섭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회장, 한병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이사장, 이동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회장, 유병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, 김인현 한국피엠오협회 회장, 조풍연 한국SW·ICT총연합회 회장, 최태림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상근부회장,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